

전남 당뇨병 환자들 제때 치료받을 병원 부족하다

지난해 당뇨환자 15만여명...의료서비스 접근성 지수 '평균 이하' 광주는 '상위권'...만성질환 적기 치료 위한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전남지역 당뇨병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지만, 병원 접근성이 낮아 제때 치료받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당뇨병 환자는 증가세다. 광주는 2019년 9만 5793명에서 2020년 9만 9756명, 2021년 10만 5943명, 2022년 11만 629명, 2023년 11만 401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은 같은 기간 13만 5051명에서 14만 387명, 14만 8568명, 14만 9093명으로 늘어났으며 2023년 15만 2315명에 달했다.

김창열 서울대 교수 등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당뇨병 진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 논문에서 전남지역 당뇨병 환자 병원 접근성 지수는 11.86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5~2019년) 당뇨병 환자 1000명당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수치화해 지역별로 비교했다.

광주는 전국적으로 상위권인 반면 전남은 하위권

으로 집계됐다. 당뇨병 환자 1000명 당 차로 30분 이내 제공받을 수 있는 전체 의료기관의 보건의로 인력을 의미하는 접근성 지수는 광주는 17.86명, 전남은 11.86명으로 차이가 났다.

전국 평균은 13.92명으로 광주와 대전(18.39명), 서울(18.01명)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전남을 포함한 강원(10.37명), 경북(10.66명), 경남(12.15명)은 평균을 밑돌았다.

당뇨병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하지 절단, 시력 저하,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해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합병증 검사로 알 수 있는 당뇨병 관리 수준의 지역 간 격차는 전남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인프라 상태를 보여준다.

2019년 기준 당뇨병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안저 검사(동공을 통해 눈알 내 유리체, 망막, 시신경 등을 확인하는 검사법)의 경우 서울 용산구 검사율은 86.5%였지만 고흥군·완도군·장흥군은 14.5%로 지역 간 격차는 최대 72%p까지 났다.

미세단백뇨 검사는 부산 사상구와 서울 용산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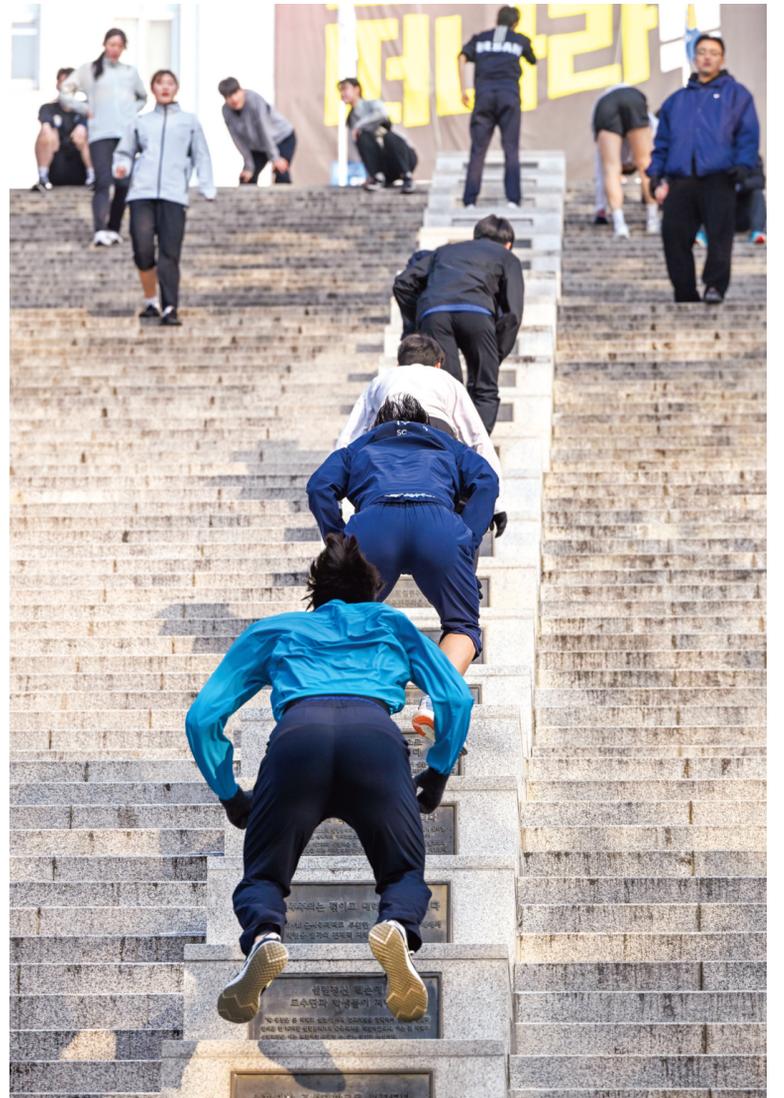
각각 88.4%, 86.9%였으나 강진군과 보성군은 19.2%, 13.4%로 최대 75%p 차이가 났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주로 일차의료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다 연구진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군·구 수준의 평균 공간적 접근성 지수를 보면 일차기관의 경우 공간적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5년간 모두 서울(강남구·성동구·서초구)에 있었으며 최대 20.72명으로 집계됐다. 화순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3.16명으로 7배 가량 차이가 났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두고 "공간적 접근성의 형평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존재 유무만이 아닌 주민들의 필요 충족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당뇨병 환자 수에 따른 적절한 의료자원이 지역별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일차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개념을 정립해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차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한 외래진료의 공간적 접근성 격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체력단련 중입니다 14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계단을 오르며 체력단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전 상정 인권위원회들 사퇴하라”

광주 등 전국 인권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원위원회(전원위)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건의안 등을 상정하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인권단체인 '인권지킴이'를 포함한 전국 인권단체 7곳으로 구성된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네트워크'(지인넷)는 14일 성명을 통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내란 세력에 동조한 반인권적 인권위원회들은 인권위에서 사

퇴하라"고 촉구했다.

지인넷은 지난 9일 전원위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 "정치 진영의 논리에 빠져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등 5명의 인권위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지난 13일 전원위를 통해 논의·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와 직원들의 반발로 전원위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지인넷은 "이번 전원위 안건은 윤석열에 대한 법

적 변호는 물론 탄핵된 한덕수 총리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인권기구의 주장이라고 믿기지 않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인권위를 권력보위위원회로 변질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안건을 폐기하고, 이번 사태를 제기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이번 사건에 참여한 반인권적인 인권위원들 또한 모두 인권위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검찰 여순사건 재심 '무죄 항소'에 유족 반발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1심 판결에 항소하자 유가족이 법정에서 울분을 쏟았다.

1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 심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심을 받는 A(사망)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A씨의 딸은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 27일 아버지가 경찰에 불법 체포돼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희생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1948년 10월 28일 체포·구금됐지만, 판결은 1950년 3월 2일 내려져 금과 3년이

선고됐다"면서 "1년 4개월 동안 계속 체포돼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체포 이후 석방 됐다"고 적법한 판결을 받았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체포·구금된 이후 석방됐다"고 해명 후 적법하게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A씨 딸은 법정에서 "아버지가 잡혀가신 후 가족들과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면서 "부모님을 죽이고 내 인생까지 망쳐놓고 항소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물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으로 잠조차 자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A씨가 적법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서류나 증거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검찰측은 "현재 남아있는 관련 서류는 없다"고 대답했다.

A씨의 다음 재심 항소심은 4월 1일 열린다. 한편 재심 1심 법원은 "A씨가 불법적으로 연행됐고, 위법한 체포·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불법 수집 증거로 법적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광주·전남 15일 '반짝 추위'... 1~5cm 눈

15일 광주·전남 지역에 1~5cm 가량의 눈이 또 내리겠다. '반짝 추위'도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5일 오전부터 16일 새벽까지 광주·전남에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다"고 14일 예보했다.

15일에는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1~5cm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장성·담양 등 전남 북동부에는 16일 새벽에도 1cm 내외의 눈 또는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5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바람도 초속 15m 내외로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6~1도·낮 최고기온은 1~4도에 분포하겠고,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6~영하1도·낮 최고기온은 6~8도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노인·영유아 등 한랭질환 취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서광주농협 advertisement featuring NH Bank, zgm pay card, and various services like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and 햇살론.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and a QR code for YouTube.